

100년 넘은 나주 옛 정미소,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최초 쌀 도정 시설이었던 전라남도 나주의 옛 정미소 건물에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주시, 8년만에 '나주정미소 준공기념 페스타' 행사 가져 전체 4개동 개보수 완료...주민거점교류센터 등 들어서

지난 2016년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근대문화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에 착수한 이후 올해로 8년 만에 4개(1동, 3동~5동)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지난주 성북동 과월길 19-5에 위치한 나주정미소에서 준공 및 개관식에 전시회, 문화·예술동호회 공연 등이 더해진 페스타(festa)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나주정미소 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됐다.

정미소 건물 4개 동(연면적 2066㎡) 부지 매입,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19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총 사업비 67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100년 넘는 세월이 흘러 다시 문을 연 나주정미소는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활동, 마을 관리 등 복합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1동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 동아리·단체 활동을 위한 주민거점교류센터로, 3동은 공연장을 포함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4동은 정미소 건물의 정체성을 살려 쌀 관련 전시 및 작품전시관을, 5동에선 주민들의 수익 창출 기반이 될 레스토랑, 주민카페 등이 들어선다. 이날 준공식엔 윤병태 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상만 시의회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도시재생관련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풍물놀이, 통기타, 성악클래식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정미소 개관을 축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에서 "나주정미소는 문화와 예술로 주민을 잇는 교류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나주정미소 준공에 노력과 정성을 다해준 주민들에게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화순 (주)포프리, 2023년 전남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선정

근로자 1인당 50만 원 등 후생 복지 지원

화순군이 2023년 전라남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은 전남에 있는 고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자를 채용함으로써 도내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관의 유출 방지에 이바지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성과급(인센티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은 신규 채용 비율 50%, 전년 대

비 근로자 수 증가율 30%, 지역인재 채용 20%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50만 원 등의 근로자 복지 후생비를 지원받는다. 2023년은 도내 6개 시군에서 13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그중 화순군에서는 (주)농업회사법인 포프리가 선정됐다. (주)농업회사법인 포프리는 2000년도에 설립된 친환경 식품 가공기업이다. 비유전자

조작 곡물, 무항생제, 무바이러스 계란·두부·콩나물·쌀 등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앞장서며, 2018년에는 전국 20만 회원을 달성, 24시간 이내 직접 배송하는 1일 배송시스템 운영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들이 근로 복지 개선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토란 재배농가 '어깨동무 컨설팅' 진행

18농가 농장 경영 상황 공유...문제점 찾아 농가 만족도 높아

곡성군은 지난 22일, 토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남과학대학교에서 '어깨동무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영기록장 작성과 재배 기술교육, 현장교육에 참여한 18농가와 함께 했고, 동시에 '곡성토란 품종선발 연구용역 보고회'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배양시험장을 견학

하는 시간이 됐다. 특히,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참여한 '어깨동무 컨설팅'은 토란재배 농가의 경영기록을 토대로 농장 경영 상황을 모두 공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영상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곡성=양혜영기자

산타와 함께 12만 몰린 '담양 메타 뮤직페스티벌' 성료

담양의 겨울 대표축제인 '2023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이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3~25일 펼쳐진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은 화려한 야간 경관조명과 산타와 함께하는 공연과 이벤트로 겨울 한파에도 불구 12만여 명이 방문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산타가 돌아다니며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며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원도심 일원 중앙공원 거리 공연과 댕빔예술창고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 LP음악충전소에서는 크리스마스 디제잉공연을 개최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병노 군수는 "한파에도 군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성원으로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했다"며 "크리스마스마다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주민이 안전한 장성 만들기 앞장

남도안전학당·맞춤형 안전교육 등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이 지역사회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했다. 안전문화운동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의식 조성 활동이다. 올해 장성군은 △남도안전학당 운영 △주민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적극 추진했다. '남도안전학당'은 고령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전문가가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가 교통·농기계 사고, 보행, 안전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해 호평을 얻었다. 한 해 동안 총 74개 마을 1133명의 주민이 남도안전학당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도 주목받았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14개소 4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과 방연마스크,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지역 전반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안전점검의 날'도 운영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6월에는 장성호 수변길과 출렁다리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7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집중된 10월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간에는 축제장 내 시설물 점검에 주력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2024년에도 안전한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구례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동절기 방한조끼' 나눔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양철승)는 최근 자활사업단 참여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따뜻한 방한조끼를 제공했다. 방한조끼는 겨울한파를 대비해 자활참여자들의 한랭질환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물이다. 자활근로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경제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철승 센터장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